

# Welcome to 2007

해외르포 · VIV ASIA 2007을 다녀와서

www.viv.net

www.viv.net



##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한 박람회

**태**국이라 함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관광의 나라와 함께 1년 내내 여름 날씨를 기억하게 한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 무더운 날씨가 우리 일행을 맞이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만만치 않은 기후를 보여주었다.

우리 일행은 숙소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한다음 곧 박람회 행사장으로 향했다.



김재홍

본회 경영지원팀 대리

### 8회째 맞은 국제박람회 VIV ASIA

지난 2007년 3월 7~9일까지 3일간에 걸쳐 태국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BITEC)에서 태국 국제축산박람회(VIV ASIA 2007)가 개최되었다.

본 박람회는 8회째를 맞이하였는데 이번 박람회는 아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2,500m<sup>2</sup>(3,750평)로 개최되었다.

박람회는 네덜란드의 VNU Exhibition Europe과 태국의 N.C.C Exhibition Organizer Co에서 주최사가 되어 추진하였고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적으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식품 가공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졌다.

박람회 첫날은 전세계에서 온 관람객들로 발 딛을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였으며 특히 국내에서 이번 박람회를 보기 위해 축산관련인들이 많이 참관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국내 AI발병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양계인들이 참관하여 양계산업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박람회 관람객중 1/3이 한국에서 축산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여기가 한국이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한국사람들이 본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바이어들의 활발한 투자상담 모습

이번 축산박람회에서는 중국, 네덜란드, 미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싱가포르, 태국, 스페인, 인도, 이스라엘, 터키, 일본, 체코, 폴란드,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 37개국에서 총 518개 업체가 출품하였으며, 중국이 88개로 가장 많은 업체가 출품하였고 한국은 24개 업체가 출품하였으며, 태국은 44개업체가 출품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행사로 면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참관객들은 2005년 박람회의 87개국에 비하여 이번 박람회에서는 92개국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총관람객수는 21,726명에 달하였다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이 대부분 출품하여 자사제품의 홍보에 열의를 보였고 한국업체 부스만 따로 마련한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태국 기후에 비하여 박람회장은 냉방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어 편안한 관람을 만끽 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부스관람으로 지친 이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볼 수 있다.

각 업체의 직원들이 자사 홍보에 열의 있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한편으로는 모업체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회사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식품안전성에 주목

이번 VIV Asia 2007은 식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러한 추세는 축산물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는데 참여업체들도 이와 관련된 주요 신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참가업체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추세에 맞게 동물건강분야가 가장 많은 137개 업체가 참가하며 사료분야가 99개, 시설환경분야 92개, 가축육종분야에 27개, 계란생산분야 7개를 비롯해 사료첨가제 분야, 도축 및 육가공 분야, 축산관련 지식산업분야 등 다양한 축산관련업체들이 참여하였다.

지난 2005년 박람회의 경우 45%정도를 차지했던 동물약품 및 안전축산물 관련 참가업체가 올해는 60%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떠오르는 중국의 축산업을 한눈에

이번 행사에 팔목할만한 점은 중국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진 점이다. 또한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동물약품 제조업체들 역시 중국의 무서운 성장을 주목했다.

중국관은 약품, 자재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부스를 설치하였고, 붉은색으로 부스간판을 디자인하여 박람회전시장 곳곳에서는 중국부스만의 독특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브 아시아측이 집계한 부스참가도 88개사로 최대규모를 과시할 정도였다. 특히 각 출품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 가격이 많게는 절반가격으로 저렴한 곳도 있다고 관람객들은 밝혔다. 중국의 동물약품의 경우는 항생제 및 첨가제 원료 등의 홍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의지가 보였다. 한 참관객은 “중국 제품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지만 품질이 고르지 않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며 “중국이 세계 시장에 눈을 뜨면서 이 부문을 만회했다는 점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직 품질면에서 국내 업체들의 인지도가 높지만 향후 중국의 약진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세미나 및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실이 부족 할 정도로 짜여진 일정에 각 업종과 관심분야별로 진행되었다. 세계축산업의 현황과 축산업발전방향등의 기본적인 토론회와 업종간 세미나가 이를 동안 개최되었는데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영어도 능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KISTOCK 홍보활동 눈에 띄어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한국의 KISTOCK에서 외국기업들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곳에 참가한 전 부스의 외국기업들을 찾아다니며 KISTOCK을 홍보하는 KISTOCK추진위원회의 모습도 보였다. 오는 9월에 개최되는 KISTOCK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필자도 양계업과 관련된 부스를 돌아다니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양계분야 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할 나위 없는 현장체험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미팜 등 24개 업체가 참가하였다(사진참조).

해외 바이어와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이미 KISTOCK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으며 박람회 참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들 얻어 올해에 개최될 KISTOCK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리알



코미팜



삼양애니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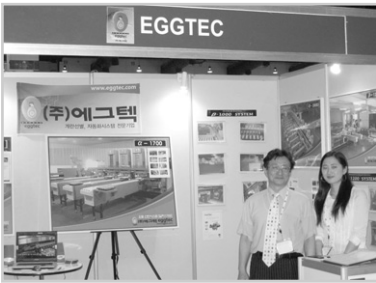
인터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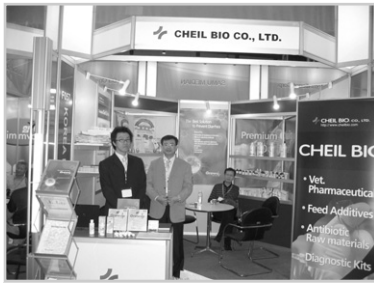
우진비엔지



중앙바이오텍



(주)에그텍



제일바이오



씨제이



삼우메디안



CTC바이오



아비아젠 - 삼화육종



올텍



성일기전



진바이오텍



건지



다원케미칼



(주)유니바이오텍